

CONTENTS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2013.08



- 02 FOCUS 뮤지컬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 06 국내 다일의 현장 다일작은천국
- 09 해외 다일의 현장 캄보디아다일공동체
- 10 해외 다일의 현장 필리핀다일공동체
- 12 천사기업 (주)나눔스토어
- 14 아름다운 변화 한땀 한땀 탄자니아 사랑
- 15 아름다운 변화 봉사란... 서로 마음을 공유하는 것
- 16 봉사자 나눔터 밥퍼는 000다
- 17 봉사자 나눔터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18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 19 다일 뉴스
- 23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24 후원 안내

후원 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발행일 | 2013년 08월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 1동 495-15 편집위원 | 김철민, 김효은, 목정수, 박정식, 이가영, 이태형, 황선아
사진 | 목정수 디자인 | 이진희 전화 | 02-2212-8004, 2213-8004 팩스 | 02-2243-8005



“다시 한 번 일어서기 하는거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7월 24일(수)부터 8월 9일(금)까지 공연되는 서울시립뮤지컬단의 <Beyond Love Story,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연습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해 성탄 시즌때 올린 첫 번째 공연보다도 더욱더 짜임새 있는 연출과 실력 있는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겨울에서 한여름으로 배경이 바뀌면서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뮤지컬 <밥퍼>의 앵콜 공연에 저 자신부터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면장면이 이어질 때마다 세련되고 속도감있게 전개되었고, 부드러우면서도 웅장한 멜로디와 그 노래를 소화하는 주연 조연 배우들의 선명한 캐릭터와 역할이 연습장면인데도 너무나 무실감나서 덩달아 저도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연출가와 안무지도 하시는 분 등뒤에서 연습 장면을 보는데도 마치 본 공연을 보는 것처럼 마음이 설렸습니다.

다일공동체 초창기 시절, 청량리역 광장과 쌍굴다리 아래에서 라면과 밥을 나누는 모습도, 낡은 철제 식판이 서로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도 실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정겨운 소리였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고도 놀라운 사건으로 조용한 날 없었던 우리 동네 사람들 이야기가 왜 이렇게 눈물겨워 보이던지요...

노숙자들과 무의탁노인들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늘 부딪히면서도 웃고 울며 깊은 정이 들었던 25년전 청량리의 풍경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참으로 눈물겨웠습니다. 뮤지컬속의 주연배우 일도와 연수를 바라보면서, 아내와 얼굴을 마주보며 울다가 웃다가를 몇 번 반복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뮤지컬단의 연습실을 나오면서 지금의 일도가 그 시절의 일도를 생각하며, 또한 그 시절의 일도가 지금의 일도를 바라보며 여전히 질문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배고프지 일도야?” “힘들지 일도야?” “많이 외롭구나 일도야?” 그리고 여전히 비가 내리는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고 한번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일도야!” “견딜 수 있어 일도야!” “다시 한 번 일어서기 하는거야, 일도야!” 아하!!

글/ 최일도 목사



뮤지컬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배우 인터뷰



(좌) 최일도 역
배우 박봉진 (서울시뮤지컬단)
(우) 김연수 역
배우 유미 (서울시뮤지컬단)



2012년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뮤지컬 초연에서 최일도 역과 향숙 역을 맡았던 두 배우 박봉진, 유미, 7월 중순, 올해 두 번째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주연배우와 뮤지컬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이하 <밥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뮤지컬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밥퍼의 "이 땅에 밥 굶는 이가 없을 때까지"라는 사랑과 나눔의 메시지는 바쁘게만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나와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예요. 최일도 목사와 김연수 시인의 드라마 같은 사랑이야기와 밥퍼의 사랑과 나눔의 메시지를 춤과 노래가 함께하는 뮤지컬로 만들어 재미와 감동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뮤지컬 <밥퍼>는 2012년 12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해 2만 명의 관객이 관람했습니다. 해외의 유명한 뮤지컬 공연의 경우 오랜 기간 공연하면서 작품이 다듬어지면서 좋은 작품으로 거듭나는데요, 작년에 초연을 한 뮤지컬 <밥퍼>는 올해 두 번째 공연입니다. 올해는 캐릭터가 보강되고 스토리도 다듬었어요. 춤과 노래가 강화되어 보는 즐거움이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과의 만남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박봉진 : 생존인물을 연기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종교적인 내용이 있다 보니 관객에게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걱정도 되구요. 헌신하면서 밥을 쪄내는 것이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김연수 시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하신 것 같다고 느껴요.

유미 : 성경에도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최일도 목사를 일으키기 위해 김연수 시인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기도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뮤지컬 초연과 비교하여 이번 재공연이 갖는 새로운 의미는?

박봉진 : 작년 초연 공연과는 또 다른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초연 때는 최일도, 김연수 두 명의 주인공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다면 올해는 최일도와 김연수의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안무를 통해 드라마를 해석하는 장면도 더 많아졌구요. 작년에 보신 분들도 새로운 작품을 보는 듯 또 다른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미 : 올해는 못했지만, 작년 초연 공연을 준비하면서 배우들이 청량리 밥퍼에 방문해 봉사했었어요. 우리가 생각만 했던 것이 아닌 노숙자들도 직접 만나고 보니 '진짜 보통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하는게 아니라 진짜 사랑 없인 안 되는구나'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작품 할 때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노숙자들을 바라보는 눈빛 하나도 달라지게 되었답니다. 그냥 밥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 퍼주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것도 느꼈구요. 이 경험이 연기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올해는 재공연으로, 작품을 바꾸고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새로운 장면도 만들고 더 극적이고, 더 감동적인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뮤지컬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은?

박봉진 : 작년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는데 올해 다시 올리게 되어 기뻐요. '밥퍼'를 하면서 많이 착해졌어요. 정화되었다고 하면 맞을까? 인간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계시인 것 같아요. 나를 스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밥퍼'는 메시지다. 작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영화도 1탄보다 2탄을 흥행시키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 작년에 했던 작품이라 어렵지 않을 것 이라 생각도 했었는데,, 역시 쉽지는 않네요^^.

유미 : 뮤지컬 <밥퍼>는 말 그대로 나에게 '업그레이드'예요. 배우로써 많은 인내심과 성숙한 모습, 그리고 김연수 역할이 필요로 하는 인내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김연수의 넘치는 사랑을 표현해야 해요. 그걸 표현(연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무대 속 최일도/김연수는 이런 사람이다.

박봉진 : 무대 속의 최일도는 '받는 사람'이에요. 최일도가 밥을 주니까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자신에게 사랑이 돌아오거든요. 작품 속에서 최일도에게 그런 깨달음이 와요. 주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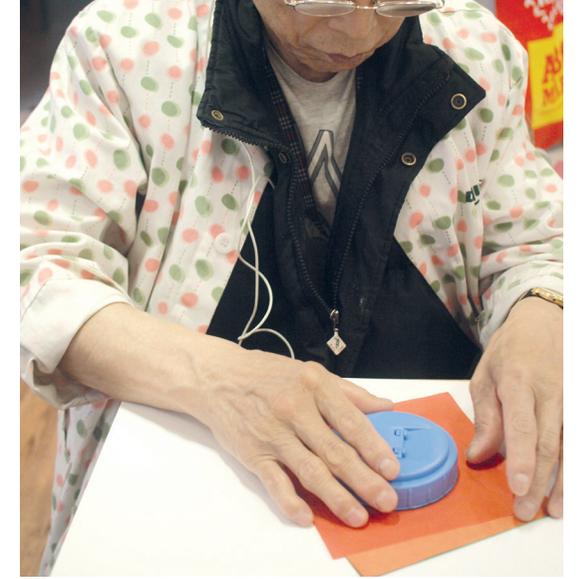
유미 : 무대 속 김연수는 '깊은 그릇'이에요. 많은 것들을 다 받아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릇이 얕으면 안 되죠. 깊어서 최일도도 받아주고, 향숙이도 받아주고 거장도 받아주고. 청량리 모든 것들을 보게 되요.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포용해주고, 나쁜 것이 와도 사랑으로 변화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얕은 사람이 아니예요. 그릇이 정말 깊어서 꺾꺾, 차곡차곡 담은 깊은 그릇 같은 사람이예요. 스스로 연기하면서 나도 알지 않고 더 깊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작은 빛 모아

“선생님 나 모래까지 외출 허락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라 “무슨이유로 어디를 가시는데요?” 그 이유를 묻자 말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이**님은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앞을 잘 못 보는 어정쩡한 걸음걸이로 의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님은 올해 2월26일에 양평쉼터에서 다일작은천국으로 오셨습니다. 청각장애4급과 고혈압, 백내장, 전립선비대로 서울시립동부병원에 다니시는데 양평에서 서울까지 병원을 다니시기가 힘들고 고령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다일작은천국으로 입소의뢰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독학으로 졸업하고 광화문우체국에서 상근직 집배원으로 36년 동안 일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인력일을 해오시다 이후 거듭되는 생활고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기면서 집을 나와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며 지내셨습니다.

홍제동에 살고 있는 부인은 뇌병변장애 6급으로 혼자서는 일생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큰아들 또한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혼자서는 약조차 챙겨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인과 아들을 돌 볼 사람은 이**님뿐 이지만 본인도 몸이 안좋은 상황에서 가족들까지 돌보려니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오게 되신 거라하시고 눈물을 흘치십니다.

인제에서 군복무 할 때 귀가 동사하여 귀도 잘 안 들리고 중이염도 생겼으나 치료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치료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에 청각으로 국가유공자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다친 시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거절당하고, 현재 양쪽 다 보청기를 끼고는 있으나 왼쪽 귀는 굳은살이 생겨서 보청기를 착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마저도 보청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잘 들리지가 않아 수리를 해야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로 수리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오른쪽 눈은 망막혈관폐쇄로 백내장수술을 받아야하지만 수술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현재 실명이 된 상태고, 왼쪽 눈은 백내장수술을 받아서 돋보기를 착용하고 계십니다. 동부시립병원에 시각장애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치료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치료기간미달로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상 이**님은 돈을 벌어야 한다 하시면서 일자리를 구해 자활을 꿈꾸지만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 취업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의 케어가 가능한 쉼터를 여러 곳을 알아보았으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입소 가능한 쉼터가 없어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아들과 부인이 받는 장애인수당이 생활비의 전부라 생활이 매우 어려워 생활전반에 대한 지원을 개입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요약하면, 이**님이 보청기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집에서 생활하는 부인과 아들의 케어를 위해 생활비의 보탬이 되고자 하나 역력이 없는 현실입니다.

다일작은천국에는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환우 분들 서른일곱분이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어둠 속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절망의 순간 위에서 한줄기 빛을 따라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 다일작은천국 환우분들께, 여러분의 “작은 촛불”로 그 길을 더 환하게 밝혀주세요.

다일작은천국 후원하기

국민은행 467701-01-224504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 다일작은천국 02-2213-8004

다일작은천국 (호스피스격 무료요양쉼터)에서 자원봉사자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봉사시간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입니다.

봉사 내용은
환경정리, 가운데세탁, 사무봉사, 목욕봉사, 주방봉사, 문화봉사 등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봉사활동을 기다립니다.
봉사신청은 전화, 방문, 이메일, 다일홈페이지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활동이 가능한 자원봉사영역과 날짜와 시간, 인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오광윤
문의전화 02-2213-8004 E-Mail lh1004@dail.org www.dail.org



8박 9일, 명지전문대와 캄다일의 꿈꾸는 여름

7, 8월 여름방학시즌에는 대학봉사단원들이 봉사활동으로, 교회에서는 비전트립으로 많은 팀들이 해외봉사를 떠납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도 시즌을 맞이하여 많은 팀들이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유난히도 뜨거웠던 초여름, 명지전문대 봉사팀과의 8박9일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솔교수님을 비롯한 49명의 단원들이 뜨거운 햇살만큼이나 열정적인 봉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매일의 밥퍼와 천개 이상의 빵을 만드는 빵퍼봉사는 기본이었고, 남자단원들은 손과 다리에 가시로 상처가 남에도 불구하고 센터 주변의 가시나무 덩쿨을 제거하여 온 동네가 다 환해진 듯, 십년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하였습니다.

톤레삽 호수 위의 가난한 수상 빈민촌 중 세 가정에게 나무배를 만들어 전달해 드렸고, 닭장보다 조금 더 큰 오두막에 살던 일가족에게 멋진 나무집을 지어드려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도 동참하셨습니다.

요즘 보기 드물게 교수님과 어른들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단원들을 바라보며 참 대견하였습니다. 총장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달해드렸고 이 좋은 만남과 봉사가 매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흐레 봉사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모든 단원들과 캄다일 가족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흐느껴 우는 자매들도 있었지요. 꼭 다시 오겠다고 다짐! 다짐하며 공항으로 들어가던 해맑은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꼭 다시 만나요! 명지전문대 최고야! 캄다일이 최고야!

글/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김혜경

캄보디아다일공동체 후원하기

국민은행 467701-01-142565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 캄보디아 김혜경 원장 855-78-708080



JESUS LOVES YOU!

최일도 목사님과 김연수 사모님, 서울다일교회 교역자들의 필리핀 방문

2013년 7월, 최일도목사님 필리핀 초청 집회 및 필리핀다일공동체 비전트립이 있었습니다. “마닐라한인연합교회”(담임 진대홍목사님)에서 7월 3일~5일(3일간), “길벗교회”(담임 백성범목사님)에서 7월 7일 주일예배 설교 등 총 4일간 필리핀의 한인 교인들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 하에 집회를 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선교사님~” 이라고 부르며 길 가던 한 인이 다 되돌아본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고, “뫼, 유 학생보다 선교사가 더 많지요” 라는 약간은 조소 어린 말도 있을 만큼 필리핀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리아노에 대한 필리피노들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고 교민사회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필리핀이야 말로

진실한 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메시지가 꼭 필요한 선교지였던 것 같습니다. 두 교회에서의 집회는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마음을 지키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주제로 각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회중은 “아멘~~”으로 화답하였고,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교민들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것 같

았습니다. 특히 마닐라한인연합교회의 진대홍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말씀 증거가 끝나면 젊은이들이 앞 단상으로 달려나와 맨바닥에 무릎 꿇고 큰소리로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최일도목사님께서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무릎 꿇은 청년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도 함께 눈물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이 이 곳 필리핀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전트립팀이 필리핀다일공동체에 도착하셨을 때,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까지 나와서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2년 8개월만에 필리핀을 다시 찾으신 최일도목사님과 김연수사모님, 그리고 최홍목사님, 방중근목사님, 임정순 전도사님과 함께 필리핀은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 한명 한명 축복해주시고, 밥퍼에서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무릎꿇고 “Jesus loves

You!”를 외치시고, 스태프들에게는 너무 너무 행복해 할 만큼 감동적인 격려를 부여주셨습니다.

최일도목사님은 역시 큰 사랑의 에너지를 갖고 계십니다. 빈민촌 가난한 아이들을 향한 사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뜨겁습니다. 아이들도 금방 알아차리지요.^^ 필리피노 스태프들과 코리아노 간사님들도 한결 프라우드 UP 되었구요. ^^ 목사님이 떠나신 후에도 필리핀 다일공동체에는 아직 사랑의 열기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른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

글 필리핀다일공동체 원장 / 이명현

필리핀다일공동체 후원하기

국민은행 467701-01-142581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 필리핀 이명현원장 63-927-560-7346

(주)나눔스토어 강진원 대표이사 인터뷰

소비를 통한 나눔 '착한 소비' (주)나눔스토어



◀ (오른쪽 두번째) 강진원 대표이사



밥퍼나눔운동본부에 꾸준히 봉사도 오시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눔스토어는 자체적으로 많은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밥퍼봉사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몇 년전 우연히 차를 타고 밥퍼를 지나가면서 밥 한끼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밥퍼 앞에서 길게 줄을 선 어르신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쌀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든 밥퍼와 어르신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회적기업 나눔스토어를 설립하게 되었고 나눔스토어의 쌀화환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나눔쌀을 밥퍼로 기부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나눔스토어의 수익금의 일부를 쌀로 밥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눔”이라는 말만 들어도 나눔과 섬김을 추구하는 다일공동체와 나눔스토어가 추구하는 가치가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눔스토어에서 실천하고 계신 나눔활동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나눔스토어는 사회적인 낭비와 허례허식을 줄여 그 비용을 사회적취약계층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에 하나로 쌀화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환시장은 약 7천억 시장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큼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화환이 일회성으로 1시간 정도만 사용되면 쓰레기로 변하여 소각되는 사회적 낭비현상입니다. 이런 낭비와 허례허식을 쌀화환을 판매하여 재

활용화환과 쌀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여 화환을 받으신 분이 나눔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나눔스토어는 밥퍼 외에도 20여개의 NGO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도 다양하여 장애인, 독거노인, 입양아, 고아 등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시설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하는 방법은 다양한 상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이 쌀화환이지만 쌀 외에도 라면화환, 분유화환, 연탄화환 등을 판매하여 꼭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기업 나눔스토어입니다!”라고 회사 소개를 하시던데, 나눔스토어에서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은 어떤 모습인가요?

나눔스토어가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모델은 '착한소비'입니다. 소비자들은 의,식,주를 통해 수많은 소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비를 하면서 '나눔'까지 생각하면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나눔스토어는 경쟁력있고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때 저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나눔스토어는 회사 수익금의 70%를 취약계층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눔쌀화환, 스타미화환 등 현재에도 나눔스토어를 대표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나눔스토어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나눔스토어는 일반기업과 개인이 이용하는 나눔쌀화환 외에도 스타미화환을 운영하여 스타들의 공연등에 스타미화환을 보내 스타들의 행사를 빛내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상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미를 전세계에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를 통해 스타미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그 반응 또한 뜨겁습니다. 앞으로 스타미를 한류열풍에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나눔스토어는 현재 '나눔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쿠팡과 같은 소셜커머스를 나눔커머스로 전환하는 작업을 통해 '소비를 통한 나눔'이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다가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스토어에게 “나눔”이란...?

전에는 나눔이라는 말이 남의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눔이란 나의 이야기, 너무 쉬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내 옆에 내 앞에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밥을 주고 빵을 주고 아픈사람이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마음의 부모가 되어주고.. 이런 노력들이 꼭 돈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고 또한 자연스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나눔스토어가 만들어 밥을 안먹으면 사람이 죽듯이 나눔을 안하면 영혼이 죽는다는 믿음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메신저 역할을 해 나갈 것 입니다.



천사기업들을 기다립니다.

다일공동체의 국내외의 사업에 동참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기업을 기다립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다일복지재단 02-2212-8004
밥퍼나눔운동본부 02-2214-0365

한땀 한땀 탄자니아 사랑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신 신명순님은 2001년도에 처음으로 연변에서 한국으로 삶의 터전을 바꾸시고, 노후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 있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한국에 오셨다고 하시는데...

열악한 환경에 뇌경색에 걸려 8년째 반신마비가 되신 남편을 지금 다일 천사병원에서 간병하고 계십니다. 천사병원에서 무료로 병을 고쳐주고 여러 봉사자들과 직원들이 항상 보살펴주니 늘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무슨 일이든 도와주시려 애쓰십니다. 병원에서 나온 폐지를 팔고, 여러 가지 부업도 하시며, 단돈 천원, 이천원 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후원 하십니다.

이런 할머니도 긴 세월 남편을 간병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고향생각에, 자식 걱정, 가끔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에 부치셔서 '하나님께서 이젠 빨리 편안하게 할아버지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라고 하시며 자주 우시고 우울해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께서 다일공동체 소식지 7월호에 실린 [탄자니아 비전트립 특집 기사]를 보시고 감동 받으신 후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으시라며 수세미를 짜서 팔아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후원 하셨습니다. 알록달록 털실로 두 시간 꼬박 앉아서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수세미는 특별하고 신기한 예쁜 옷모양 으로 완성됩니다. 할머니의 수세미는 여러 사람들에게 인기만점 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 뜨거운 날씨에 채석장에서 일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 마음이 찼해요, 내가 옆에 가까이에 같이 살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으련만... 비록 내 마음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바닷가의 모래알의 크기만큼도 안될지 몰라요. 그래도 이런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요즘,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으시라며 다시 힘을 내시고 싱글벙글 웃으십니다. 할머니가 웃으시니 할아버지도 한결 편안해 하십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이 '바가모요' 하고 외쳤던 아픔의 땅에 참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전하려 오늘도 수세미를 짭니다. 희망을 짭니다. 탄자니아 백불의 기적에 함께 동참합니다. 글/ 편집부



봉사란... 서로 마음을 공유하는 것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 밥퍼(이하 대.청.밥)에서 학생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병준 학생입니다. 지난 4월, 대.청.밥 발대식 이후 저희의 활동과 느낌에 대해 나누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 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베트남 문화와 예절, 봉사에 임하는 마음 자세에 대한 강의를 듣고 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국제 어린이날을 맞아 밥퍼 센터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후원받은 햄버거, 음료수, 요요풍선을 정성스레 싸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밥퍼 센터에서 아주머니가 요리해주신 것을 저희가 앞치마도 입고 머리도 묶고 한 그릇 한 그릇 직접 어르신들께 밥을 퍼 드렸습니다. 그날 저희가 밥을 퍼 드리는 동안 몇몇 어르신들께서 저희에게 오시면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봉사라는 것이 단순히 몸으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후 호치민과 멀리 떨어진 동나이에 있는 벤틀고아원에 가서 봉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은 고아원 아이들 100명에게 베트남식 닭죽을 나누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죽을 퍼주고 또 직접 먹여주고, 그리고 식사 후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운 놀이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누나~”하면서 처음 본 저희들을 잘 따라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하늘에게 아기천사들이 내려 온 것 만 같았습니다. 봉사시간이 유난히도 짧게 느껴졌고, 아이들과의 헤어짐이 너무나도 아쉬워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봉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 두 눈이 글썽글썽해진 대.청.밥 회원 여학생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소통하고, 삶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 아이들을 친동생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우리 그 마음을 갖고 봉사하자!”

대.청.밥 활동 전에는 봉사라는 것이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통해 오히려 저희 마음에 더 큰 사랑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청.밥 파이팅!

글/ 대청밥 학생회장 김병준



밥퍼는 000이다

비움이다 태광 티시스 이정민
깨끗이 비워지는 식판을 보면서 평소 남겼던 잔반이 생각나고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밥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귀한지 새삼느끼게 되네요. 나누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 살게 되기를 다짐합니다.

행복한 나눔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어머니모임 유희석
오늘의 봉사는 나의 행복한 나들이였다.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 행복했다. 열심히 봉사하시는 나눔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아름답고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봉사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사랑나눔이다 서울유유 이보원
이땅에 밥을 굶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삼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사연이다 맥쿼리그룹 김혜성
많은 사연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곳이 밥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연은 다들 다르겠지만 한곳에 모여서 진지를 드시며 위도 채우고 마음도 달래는 곳에서 한끼의 봉사를 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행복이다 현대상선 서정민
회사 입사후 처음하는 봉사활동인 만큼 기대가 컸는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봉사를 하면, 봉사하는 사람의 행복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식판을 받으시고 빵을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 한마디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시는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오늘은 밥퍼 봉사활동으로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다 한울타리 최석구
밥퍼는 단순히 밥퍼가 아니다. 많은 봉사자들의 사랑이 합쳐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밥퍼이다.

행복이다 도로교통공단 홍중순
노곤한 팔다리가 행복하답니다. 사진도 예쁘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옹달샘이다 새로운교회 인보영
아침에 눈떠서 혼자있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눈을 뜨게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는 분들을 보면서 옹달샘처럼 마르지 않고 이 분들이 언제나 찾을 수 영원한 샘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이이숙
내안에 행복과 풍요를 모르고 살았음을 크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늘상 내자신에게 불만이었으나 밥퍼에 와서 나를 발견하였고 천하를 얻은 듯 기쁨과 만족이 넘칩니다. 자녀들과 꼭 같이와서 경험시켜주고 싶습니다.

장마 땀이다 USFI 박종호
지구촌의 어느 한 나라는 기쁨에 젖어들어 이순간을 즐기고 있을때 조그만 나라의 허름한 동네의 애잔한 슬픔을 간직한 이들을 위해 아니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모인 천사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쉽게 떨어내렸으면 한다.

행복이다 델피콤 임보미
회사창립일 기념으로 만났던 밥퍼. 처음엔 셀레임반 걱정반 이었는데 봉사활동을 하며 그런 생각들은 없어지고 가슴안에는 뭔지모를 뿌듯한 감동과 행복이 가득차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온 내가 오히려 봉사활동을 하며 행복이라는 양식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밥퍼로 마음의 봉사활동을 받았어요.



고려대KNA(Korea Noblesse Oblige Academy) 과정에 있으신 각 회사의 대표와 선생님들께서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 밥퍼 봉사에 참여 하셨습니다. 하고 있는 일에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봉사하며 실천해 나가겠다고 감사의 인사까지 전해 주신 그 마음 감사합니다.



인간의 참다운 건강증진과 아름다움의 유지라는 목표를 가진 기업답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젊은 열정과 에너지를 어르신들께 공급해주시는 활기찬 하루였습니다. 아시아 빈민촌 아이들의 생활을 들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샴푸까지도 선뜻 후원해 주신 유현오 대표이사님과 제닉이 최고입니다.



흰색티셔츠에 선명히 찍힌 맥쿼리그룹의 이미지처럼 봉사하는 내내 한분 한분의 섬김의 밝은 마음가짐이 선명히 보이는 맥쿼리그룹입니다. 개인이 후원하는 만큼 기업에서 후원하는 일대일 매칭 후원으로 밥퍼의 식탁을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통신관련 솔루션개발에서 통신 재판매업하는 벤처기업 입니다. 이대형 대표님과 직원들이 창립10주년 워크샵을 봉사로 대신했습니다. 서글서글한 친근함이 어르신들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한분 한분 모두가 선한 눈에 밝은 미소를 소유한 칼라일. 한마디 주고받는 인사만으로도 기분좋고 풋풋한 모습입니다. 더운 여름 청량한 시원함을 밥퍼에 선물해주신 칼라일 감사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함께 해주셨지만 최상의 팀워크와 열정을 보여주신 농협물류입니다. 땀흘려 봉사함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해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상용 이사장님께서 함께 땀흘려 봉사한 도로교통공단입니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김이 밥퍼와 참 많이 닮아있습니다. 주상용 이사장님의 유쾌함으로 인해 봉사내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참여한 행복한 도시락 나눔과 함께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들은 꼭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나눔스토어와 함께 장재훈 대표이사님과 임직원분들이 함께한 티에프솔루션은 쌀1톤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모습에 저희 모두가 감동을 받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대GLP 과정에 있는 CEO분들이 밥퍼 명예본부장 조용근회장의 인도로 밥퍼 봉사를 오셨습니다. 밥퍼에 처음 봉사를 오셨지만 정말로 감동과 보람이 있는 시간이라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봉사하시고 가난한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비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형제의 참사랑을 위한 기도

- 최일도

내가 나만 바라보다가
내 수렁에 스스로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고
내 뜻을 높게 해 주소서.

나를 넘어선 따뜻한 시선으로
하느님 당신과 이웃을 보게 하시고
형제가 당하는 어려운 고비마다
함께 무릎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나에게 베풀어진 형제의 사랑을
셈하지 않게 해 주시고
내가 베푼 사랑을 과장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슬프고 괴롭고 섭섭한 순간들조차
내 사랑이 닿지 못한 높이와
내 사랑이 퍼지 못한 넓이의
쓸쓸함이라는 걸 깨닫게 하소서.

당신이 심어주신 척박한 땅에서
당신이 불러주신 공동체 안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빛깔로
형제의 참사랑을 꽃피우게 하소서.

오직 하나인 목숨
이승의 남은 햇살을
서로 사랑함으로 불태우게 하시고
화해와 일치의 도구로 쓰이게 하소서.

주여, 오늘도
더욱 사랑하지 못한 아픔으로만
참회하는 영혼이게 하시고
흠뻑 젖은 가슴이게 하소서.

아아,
사랑 때문에만
오로지 사랑 때문에만
이 생명 타오르게 하소서.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이루어지게 하소서](도서출판 마음의 숲) 중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김연수 시인이 소중하게 여겨온 기도시들을 번역하여 엮은 책으로 신앙인이 아니어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위로 받고 싶고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 되는 글들이 담겨있습니다.

시인은 현재 다일영성생활수련원 원장이자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의 상임이사이며, 시집으로는
<숨어사는 신화> <그대가 내게로 오면> <아득한 별에 꽃씨 묻으며> <실락원의 연인들> <꽃심>이 있으며,
산문집으로 <사랑이 있어도 때로는 눈물겹다> 등이 있습니다.

Vietnam · China

베트남

1. 김한모 우리은행호치민지점장님과 직원들 봉사



새로 부임하신 김한모 우리은행호치민지점장님과 직원들이 봉사를 오셨습니다. 김지점장님은 각 기업체를 방문하며 부임인사를 하고 있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밥퍼 센터를 방문하여 봉사를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 질문을 하시고 지속적인 봉사 와 후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은행 호치민지점이 최고야!!!

2. 김흥수(대광 대표) 서포터즈 밥퍼 봉사



김흥수 서포터즈(대광 대표)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옷 300장을 가지

고 밥퍼 센터에 봉사를 오셨습니다. 김 서포터즈님은 좋은 일은 같이 해야 한다며 주변의 지인들에게 서포터즈 가입과 봉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 서포터즈님 소개로 이미 두 분이 월 \$100후원을 후원하고 계십니다. 김 서포터즈님이 가지고 온 옷을 받아든 모든 분들이 감격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전해 왔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후원과 봉사에 참여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 베트남다일공동체 사역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베트남 다일공동체는 한인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후원 받아도 물품을 운반할 차량이 없어서 물품을 꼭 필요로 하는 우리의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에게 물품들을 전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꼭 전달해 달라며 정성껏 준비하여 보내 주시는 물품을 베트남은 물론이고 캄보디아나 주변국에도 전해 주고 싶은데 운반할 차량이 없는 실정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베트남다일공동체에 필요한 차량구입을 위해서 \$20,000 이 더 필요합니다. 베트남

다일공동체 밥퍼 사역에 날개를 달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여 천사가 되어 주세요.

중국

1. 연이의 졸업식



다일어린이집의 연이가 장춘대학 여행관리과를 졸업했습니다. 중국은 6, 7월이 졸업시즌입니다. 그리고 중국 대부분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졸업식에 부모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9시간 버스를 타고 장춘대학에 가서 부모 중 유일하게^^ 어머니가(이희준 부원장님)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연이의 졸업식은 그동안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해 다일어린이집 동생들의 좋은 모델이 된 연이, 4년간 응원하며 연이의 대학 학비를 지원해주신 강남대학교 조준영 교수님, 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최일도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졸업하는 특별한 졸업식이기에 그 감동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이여! 졸업 축하해!

2. 막내 송현이 100일 파티



중국 다일어린이집의 막내 송현이가 오늘로 100일이 되었습니다. 버려질 당시 소지품등에 생년월일이 쓰여 있지 않아서 비록 정확한 날짜가 아니고 추정한 날짜이지만 새롭게 만난 다일어린이집 온가족이 모여 송현이의 100일을 마음껏 축하했습니다.

"송현아! 사랑한다!! 맑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현지에서 송현이 백일을 맞이하여 맛있는 케익을 준비해 주신 권윤경 선생님, 귀한 선물 준비해주신 변사장님 내외분 참 감사합니다.

3. 사랑가득한 특별한 채소



중국다일어린이집에는 이삼일에 한번씩 아주 특별한 채소가 배달됩니다. 녹색식품(유기농)에다가 종류도 다양하고 정성껏 손질까지 한 특별한 채소들입니다.

이 채소를 보내시는 분은 다일어린이집에서 성장해 작년 겨울 결혼한 림예화의 시어머님이십니다.

며느리가 자란 다일어린이집의 동생들을 위해 해마다 감자와 옥수수 농사만 지으시던 분이 올 봄에는 밭에다가 각종 채소들을 골고루 심으셨다가 이삼일에 한번씩 정성껏 손질해 보내주시는 귀한 채소입니다. 시집 온 며느리를 너무나 예뻐 해주시는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이런 극진한 사랑을 보내주시니.. 너무 감동되고 이 채소를 먹는 우리 아이들이 어찌 건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님께 마음을 모아 고개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 리은미의 생일-스마일님 선물



오늘은 은미 생일입니다. 은미는 이번주 토요일에 소학교를 졸업하

고 가을학기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13살 소녀입니다.

중다일, 온가족이 모여 함께 은미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이숙의(스마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가득한 생일선물을 한가득 보내주셨습니다.

뜻밖의 선물에 은미가 너무 행복해하며 좋아합니다.

이숙의(스마일)님은 2년전 중다일을 방문하셨는데 그 후로 은미가 계속 생각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은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신 스마일님, 감사합니다.

스마일님 덕에 중국다일공동체 가족들도 스마일~ 합니다.

필리핀

1. 한국자유총연맹 봉사



'한국자유총연맹'에서 20명의 봉사자들이 아이들 학용품을 한 아름 안고 찾아오셨습니다. 밥퍼 봉

Philippines · Tanzania · Yebyng

사는 물론이고, 아이들을 씻기고, 청소도 시원시원하게 금방 하셨습니다. 화장실 변기도 똑똑똑 고쳐주셨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 오신 봉사인데, 내년에도 또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꾸준한 방문과 봉사활동,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 예쁜 새 바지



장미미 목사님이 유치원 아이들과 큰 아이들을 위해 예쁜 새 바지를 이민 가방으로 한 가득 무겁게 싣고 봉사활동을 오셨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또 빈민촌 아이들 가정을 방문하였다가 너무도 형편없이 처참한 주거환경을 보고 가슴아파 하시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갑을 털어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자니아

1. 아동카드목걸이

쿤두치 밥퍼 센터에서 결연된 아동들에게 옥수수 가루와 기름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동안 제작한 아동카드를 비전트립팀이 주고 가신 고리가 달린 목 끈에 연결하여 해당 아동들에게 걸어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사진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다음 달 부터는 카드를 가지고 오면 확인을 한 뒤 결연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물건을 자유롭게 들고 갈 수 있게 목에 거는 카드를 만들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쿤두치 채식장 빈민촌 아이들의 손을 잡아 주신 후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LOVING HANDS!

예향어린이집

1. 알뜰바자회

지난 6월 26일, 예향어린이집에서 알뜰바자회가 열렸습니다. 각 가



정에서 보내주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깨끗하게 손질하여 예향어린이집 친구들과 바꿔 쓰고 나누어 쓸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향어린이집에서 제일 큰 형님반인 행복반 친구들이 사랑반, 소망반 동생들에게 물건을 팔아보기도 하고, 동생반 친구들은 가격을 물어보며 물건을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향어린이집 친구들과 함께 한 알뜰바자회에서 모인 수익금은 탄자니아다일공동체로 후원하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2. 강남구청 방문 안전교육 - 재난안전교육



강남구청에서 예향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재난안전교육을 들려주셨

2013년 6월21일~7월21일

Little heaven

습니다. 지진과 장마로 인한 폭우 및 태풍에 대해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도 해주시고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3. 즐거운 물놀이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예방어린이집 친구들과 신나는 물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장마로 인해 비가 오는 날도 많았지만 날씨가 무더운 날에는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물총을 가지고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며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천국

1. 다일작은천국 금연클리닉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다일작은천국에서 입소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및 금연강연 수강을 가졌습니다.



“나쁘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이놈의 담배와 이별하기가 참으로 힘들어”라며 클리닉에 참여하신 어르신분들도 계시고 그동안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굳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기 위해 또 다른 고통을 받아야 하나?”하는 마음에 금연을 포기하셨다가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해 보시겠다는 입소 어르신분들도 계십니다.

끊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배를 끊었다가도 옆 동료가 담배를 피우거나, 밥을 먹고 난 후 담배 생각은 간절해지지만 우리 서로의 건강을 서로 챙겨주기 위해 함께 금연합시다~~!!

2. 즐거운 미술치료시간



매주 목요일, 입소자 어르신분들이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십니다. 바로 미술치료시간! 매일 새로운 주제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정착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번 미술치료시간에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이름표를 만들어보았답니다~ 각자 어르신들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한 이름표 작품들~! 참 멋지지요?^^

3. B형간염 예방접종



서울시에서 B형간염 마지막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모두 84명 접종하셨고, 이제 B형간염 항체가 생겨 건강해지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세요!!



신규후원자

(주)글로리여행사, (주)농협물류, (주)디에프플라워, (주)포앤이엔씨, 고성화, 고은주, 고정혜, 고창배, 구름산초3-2, 권영, 권평운, 김건, 김건희, 김경동, 김경아, 김남근, 김미선, 김민, 김민기, 김민수, 김복희, 김성목, 김성국, 김성규, 김성락, 김성순, 김수린, 김승홍, 김영옥, 김용대, 김원상, 김유진, 김재창, 김정현, 김준옥, 김지혜, 김창래, 김현옥, 김현진, 김혜성, 김혜성, 김호진, 나중식, 노원균, 대한변호사협회, 델피콤(주), 델피콤(주), 도로교통공단, 동정옥병도, 마소연, 마소연, 목진오, 문갑연, 문대환, 문재원, 민수희, 민현경, 박기숙, 박미숙, 박상필, 박선임, 박순희, 박영미, 박영숙, 박은숙, 박장배, 박장희정명순혜인, 박정자, 박종호, 박형구, 배일수, 배혜빈, 백승민, 백인영, 서울대GLP, 서울대GLP, 서하옥, 손세헌, 손지윤(이은숙), 송민섭, 송범, 송은주, 신중웅, 심경보, 심도진, 안연숙, 양명순, 양선정, 양웅식, 양웅식, 임호란, 오재성, 우선영, 우형준, 원정자, 유경자, 유영재, 유지연, 유진, 유희석, 윤삼규, 윤숙오, 윤승환, 윤영흠, 윤진하, 이국범, 이금복, 이나은, 이명수, 이명희, 이명희, 이민아, 이병락, 이보원, 이상욱, 이상현, 이상훈, 이수진, 이은숙, 이정민, 이정화, 이준희, 이현옥, 이현주, 이환희, 임예은, 임은옥, 임현택, 장명자, 장옥화, 전기철, 전소정, 전주대공과대학, 정경희, 정명훈, 정미옥, 정선희, 정용근, 정재필, 정준갑, 정준갑, 정혜영, 주희정, 진솔, 채병윤, 채수진, 최경락, 최경화, 최광수, 최광수, 최성용, 최영미, 최영숙, 최윤성, 최재성, 최정원, 추영룡, 커피나인, 하수연, 하유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울타리, 함은옥, 허균, 임덕지, 허웅중, 허인선, 홍한이, 황종록, 황지인 (가나다 순)

6월11일~7월10일

밥퍼 - 후원금

현대상선, 외환은행나눔재단, 소망봉사팀, 나라산업, 서울석유, 김지현, 최달선, 인호진, 김성철, 최고경영자과정, 한동대(안기욱), 한국씨티은행, 서동일, 고려대KNA, 공무원연금공단, 권혜진, 윤현숙, 정신남, 이환길, 김향숙, 아미산악회, 신민숙, 홍경화, 광천교회, 유현오, 김중철, 강찬훈, 인천공항안내데스크, 서울과학고어머니모임, 에이앤피 파인네셜대부(주), 양민영, 김성연, (주)에스지엔지, 김은정, 박유미, 이은숙, 김재창, 무명, 이희숙, 이창한, 황재영, 동일교회, 한울타리, 수도권산악회, 박종일, 도로교통공단, 양순화, 국순애, 이종욱, 동부문화재단, 도로교통공단, 번성하는104, 칼라일코리아, 장문성, 고재근, 황귀중, 서장선, 동안교, 김재하, 조소옥, 아미산악회, 구미목장교회, 글로리여행사, 서동일, 농협물류, KT올레닷컴, USF, 델피콤(주), (주)에이엠지, 대한지적공사 동대문지사, 이동원, 최경근, 서울대GLP, 조현숙, 동명주, 국방홍보원, 서태현, 박명숙, 이일옥

6월11일~7월10일

밥퍼 - 후원물품

6/11	가나다푸드 김치20kg 1box	6/18	가나다푸드 김치20kg 1box	7/2	가나다푸드 김치20kg 1box
6/11	김지현 쌀100kg 1포	6/18	하이트진로 석수500ml 300box	7/3	담심리새마을금고 쌀20kg 5포
6/12	서울우유 우유 1008개	6/19	(주)친환경두채류사업단 콩나물 20box	7/3	신촌명품김치 깍두기 15봉
6/12	(주)친환경두채류사업단 콩나물 20box	6/19	서울우유 우유 1008개	7/3	드림재단 빵 800개
6/12	드림재단 빵 800개	6/19	사조대림 소시지350g 730봉	7/4	김용식 쌀20kg 4포
6/12	황우유통 양 30kg	6/19	드림재단 빵 800개	7/5	티에프솔루션네트워킹 쌀10kg100포, 김치10kg 10box
6/14	(주)해우촌 김 1200개	6/19	(주)제닉 삼푸 200개	7/5	동대문세무서 쌀20kg 1포
6/14	광동제약 비타500 10box	6/21	한울타리 쌀20kg 10포	7/5	석성 박카스 1000병
6/14	나눔스토어 라면 40box	6/24	(주)친환경두채류사업단 콩나물 25box	7/5	(주)친환경두채류사업단 콩나물 25box
6/15	골드후레쉬 과일 31box	6/25	가나다푸드 김치20kg 1box	7/6	한국중부발전 김자 30box
6/15	이동근 쌀20kg 5포	6/25	드림재단 빵 800개	7/10	서울우유 우유 1008개
6/15	김민오 쌀20kg 1포	7/2	진성식품 동등뼈 15box	7/10	드림재단 빵 800개
6/17	청량리전기사업소 쌀20kg 7포	7/2	송주향 쌀20kg 1포		

베트남

나할, 대광, 대유비나(황금임대표), 우리은행, 롯데리아, 다이목, 포스코베트남, 포스코SOUTH ASIA, 베가스, LOCOS, 기업은행, 음태현, 아산상선, 대우INTERNATIONAL, POS-SEA, 최기흠, 최혜인, 최혜린, 배준익, 배서진, 배진영, 전기성, 김태연

베트남-후원물품

도베가스(컵라면, 우유 96개), 기업은행 (요구르트 150개), 포스코ICT(쌀40kg), 김흥수(옷, 300장)

중국

김성재(Obey & Praise), 변대현(중국 훈춘), 강영남(중국 심천), 이숙의(미국 시카고), 권윤경(중국 훈춘), 고미나(중국 북경), 도문 인터학교(도서기증), 무명1인

캄보디아

토마토은행, 프놈펜 제일교회, 전용민, 한상소, 김순예, 라온아띠 9기, 대박, 카도, 현대라이프 노조, 이금균가족, 청심국제고등학교, 대구시 중구청, 영화감독 이장호, 이영주, 유니온스클럽, 경기국제고등학교, 강원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김동호, 충남아산시 의용소방대 연합회, 김성재, 여주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삼양제일교회청년부, 대전 우송대학교, 바기오 유니온 스쿨

필리핀

장미미, 추고은, 정은희, 이호진, 이명현

필리핀-후원물품

한국자유총연맹(학용품 200 여점), 장미미 목사님(아동용 바지 100 여점)

작은천국

롯데(100만원)

"현장에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신 분들입니다."

"지속적인 사랑으로 후원해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일은 여러분의 맘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ARS 060-708-1588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1. CMS(자동이체)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신청이 가능합니다.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후원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손쉽게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원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3. 착한소비 행복한 나눔

사랑의 보험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기부플랫폼에 견적예약 하면 보험만기 1개월 전에 8개 보험사 비교 견적을 제공하여 가장 좋은 가입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동시에 수익금의 일부가 다일공동체에 기부됩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체 참여

후원 문의 TEL 02-2212-8004
FAX 02-2212-8032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7-77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지역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계좌번호 : 334001270347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국내후원계좌 국민 467701-01-05311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0337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밥퍼나눔운동본부 문의 전화 02-2214-0365
E-mail babfor@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abeh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Sunyou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bjgjesus@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619-487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중국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6-183-4339-7009
E-mail mookanri@dail.org 070-7792-5451
후원계좌 기업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베트남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4-12-6317-7912
070-8220-6160
E-mail lpl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55-78-70-8080
070-8220-3940
E-mail graceke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6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필리핀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63-927-560-7346
070-8220-3278
E-mail emhok@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네팔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977-98494-58330
070-8201-5833
E-mail babperdail@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255-786-740-003
070-4099-8686
E-mail dail8004@gmail.com / hslee0304@hotmail.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396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